

초등학교 3,4학년 영어교과서 문화 내용 분석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ultural Contents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s
for Grades 3 and 4 Based on the 2015 Revised Korean National Curriculum

장나래*, 김정렬**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Na-rae Jang(narejang@naver.com)*, Jeong-ryeol Kim(jrkim@knue.ac.kr)**

요약

본 연구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교과서 8종의 문화 고정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목표와 핵심역량에 부합하는 문화적인 내용들이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Moran(2001)의 문화 유형 분류를 나금호(2005)가 재구성한 문화 내용 유형 분석표를 분류 기준으로 선정하여 산물, 관습, 관점, 공동체, 인물의 다섯 가지 범주에 따라 분석하고, 영어 교과서에 반영된 문화 내용 유형 분석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목표와 핵심역량 달성에 보다 효과적인 문화교육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분석 결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교과서는 타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방식, 행동유형 및 관습과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 산물과 같은 가시적인 문화에 관한 내용,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보편적 문화 소재를 위주로 문화 내용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학습 욕구를 반영하는 균형 잡힌 문화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문화고정란은 문화 소재 유형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있는 문화 내용을 소개하고 문화 내용 제시 방식 및 학습활동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과 자기관리역량, 공동체역량 및 지식정보처리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중심어 : |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교과서 | 2015 개정 교육과정 | 문화 내용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ltural contents represented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s for grades 3 and 4 based on the 2015 revised Korean national curriculum. An analysis of cultural contents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Morgan(2001)'s five category criteria. Among the five aspects of culture, 'practices' relevant to daily life were presented most frequently in the textbooks followed by 'products'. English textbooks showed a relatively low frequency in 'perspectives' and 'communities' areas of culture. 'Persons' did not appear at all in all eight textbooks. It revealed that there was a serious imbalance in the representation of textbook about cultural contents. In conclusion, there should be balanced cultural contents for the students to have a balanced cultural awareness and to accept cultural diversity and differences. In addition, textbooks should include more various cultural materials and activities for the students to develop four key competencies suggested on the 2015 revised Korean national curriculum.

■ keyword : | Cultural Content |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s | 2015 Revised Korean National Curriculum

I. 서론

2015개정 영어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영어과에서는 학습자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길러 주는 것을 총괄 목표로 삼으며 동시에 남을 배려하고 돕는 모범적인 시민 의식과, 지적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외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고 상호적인 가치 인식을 통해서 국제적 안목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본예절, 협동심 및 소양을 기르는 것 역시 영어 교과와 중요한 목표이다[1]. 서로 개별적인 것으로 보이는 각각의 목표는 언어와 문화라는 큰 틀로 접근하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Crawford와 Lange는 문화와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하며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 또한 Tomalin와 Stempleski는 그들의 저서 'Culture Awareness'를 통해 습득할 언어와 관련된 문화적 관습에 대한 지식이 제2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어 교육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과 더불어 문화적 소통 능력(cross-cultural communication skills)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3].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사회는 각기 다른 민족과 국가의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호 문화적(intercultural) 태도를 토대로 소통, 협력해야 하는 사회이다. 영어과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영어의사소통역량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언어 화자와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맥락에 적합하게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역량은 맥락으로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상호 문화적 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2015 개정 영어교육과정에서의 문화교육이 더욱 중요시된다. 또한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포함하는 공동체역량[1]을 신장하기 위해서도 영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이 필수적이다.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교과서이다[4]. 우리나라의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과 공교육의 장에서 영어교육을 위한 기본 지침서가 영어 교과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영어 교과서가 문화교육의 주요 도구가 될 수 밖에 없다[5].

이와 같이 영어의사소통능력 함양과 상호 문화적 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됨에 따라 그동안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화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교과서 8종의 문화 고정란을 대상으로 문화 내용들이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분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영어 교과서의 문화 내용을 분석한 주요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나금효(2005)는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교과서가 문화적 측면을 얼마나 다양하고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종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와 이와 연계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총 8권을 선택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부분의 문화내용을 문화 배경별, 문화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문화 배경별 분석은 문화내용을 한국적 문화배경, 영미적 문화배경, 문화 대조적 배경,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문화 유형별 분석은 Moran(2001)이 제시한 산물, 관습, 관점, 공동체, 인물의 다섯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문화 유형들을 분석하였다[6]. 정인경(2010)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가 어떤 문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문화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Moran(2001)의 문화 유형 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3-6학년 영어교과서의 단원별 문화 소재를 파악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 내용을 Moran(2001)이 주장한 다섯 가지 범주인 산물(products), 관습(practices), 관점(perspectives), 공동체(communities), 인물(persons)에 따라 분석하였다[5].

박선희(2012)는 7차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초등학교 6학년 3종의 교과서의 문자부분과 문화고

정란을 대상으로 3개의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19개의 문화 내용 소재 구성 여부, 둘째, 문화 배경을 국가별로 한국문화, 영어권문화, 비영어권문화, 대조문화, 보편문화, 셋째, 문화 유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즉 물질문화, 행동문화, 정신문화로 나누어 분류하였다[7]. 김가현(2015)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 교과서 5종의 문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Bierstedt(1970)의 문화유형(물질문화, 행동문화, 정신문화)과 Lado(1964)의 문화 배경별 분류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문화 배경(영어권 문화, 기타 문화, 대조 문화, 보편 문화)으로 분석하였다[8].

이상의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화 내용 분석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기존의 한국 문화, 영미 문화, 문화 대조, 보편 문화로 문화 배경을 분류하거나, 문화 유형을 'big C culture', 'little c culture' 또는 정신문화, 행동문화, 물질문화로 분류한 기준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문화 내용 분석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 내용을 Morgan(2001)이 주장한 다섯 가지 범주인 산물(products), 관습(practices), 관점(perspectives), 공동체(communities), 인물(persons)의 문화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 내용들이 문화유형 측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각각의 문화를 존중하는 공동체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의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교과서 5종 중 대교(이재근)의 교과서를 제외한 4종의 문화 고정란을 대상으로 문화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교(이재근)의 교과서는 11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 고정란(Culture

Project)은 각 학기의 마지막에 등장하여 총 2차시로 제시되어 있어 분석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할 교과서의 출판사 및 저자, 문화고정란 명칭은 [표 1]와 같으며 각 출판사의 교과서명은 알파벳으로 표시하였다.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

구분	출판사	저자	문화고정란 명칭	단원구성 (문화고정란)
A	천재	함순애	Aha! World	11(5)
B	YBM	김혜리	Culture Project	13(13)
C	YBM	최희경	Hello World	12(12)
D	동아	박기화	Hello World	6(6)

2.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는 Moran(2001)이 주장한 다섯 가지 범주인 산물(products), 관습(practices), 관점(perspectives), 공동체(communities), 인물(persons)을 나금호(2005)가 재구성한 문화 유형 분류표에 따라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화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물(product)은 문화 구성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가공물로서 가시적인 차원에서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유형적인 것에서부터 지각할 수 있는 무형의 구성물을 포함한다. 둘째, 관습(practices)은 문화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활동과 상호작용을 말한다. 관습에는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가 모두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 해석과 함께 사회적 상황의 의사소통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타부와 같은 적절성의 개념도 이에 속한다. 셋째, 관점(perspectives)은 문화 구성원 개인과 사회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문화 산물의 토대가 되는 인식 체계, 신념, 가치, 태도를 나타낸다. 넷째, 공동체(communities)는 특수한 사회적·물리적 맥락과 환경에서 문화를 실행하는 개인들이 속한 특정한 집단을 의미한다. 다섯째, 인물(persons)은 문화나 공동체를 각기 독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개개의 구성원을 말한다. 분석 기준의 유형을 세부 하위범주로 나누어서 문화 유형 분류표를 만들어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문화 유형 분류표

유형	하위범주
산물	나라, 도시, 명물, 유적지
	의, 식, 주
	지형 및 기후
	자연과 환경(오염, 보존)
	예술(음악, 미술)
	발명품(TV, 컴퓨터, 스마트폰)
	인사 및 소개
관습	사회습관(식사, 생일, 건강, 풍습)
	편지, 일기(e-mail, SNS, 홈페이지, 인터넷)
	취미, 여가, 안전, 스포츠, 캠핑, 여행
	명절, 행사
	일상생활(전화, 쇼핑, 숫자)
	동물, 동물보호
	직업, 장래희망
관점	국민성 및 가치관
	언어(속담, 광고, 신문기사, 제스처)
	위인 및 인물
	문학(이야기, 유머)
	과학 및 탐구
	기타
공동체	여성, 남성
	학교 생활
	시골·도시생활
	가족생활
인물	개인생활 및 습관

산물	홈페이지, 인터넷)							
	취미, 여가, 안전, 스포츠, 캠핑, 여행	.	2	1	2	5	12	
	명절, 행사	
	일상생활(전화, 쇼핑, 숫자)	1	4	4	1	10	23.8	
	동물, 동물보호	.	1	2	2	5	12	
	직업, 장래희망	
	국민성 및 가치관	
관점	언어(속담, 광고, 신문기사, 제스처)	
	위인 및 인물	
	문학(이야기, 유머)	
	과학 및 탐구	
	기타	
공동체	여성, 남성	
	학교 생활	
	시골·도시생활	
	가족생활	1	.	1	1	3	7	
인물	개인생활 및 습관	
합계		빈도수						42
		비율(%)						100

4종의 3학년 교과서를 문화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관습이 67%로 가장 높은 반영률을 보였고 산물은 26%, 공동체는 7%의 반영률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관점과 개인생활 및 습관과 관련된 인물은 네 교과서 모두 다루고 있지 않았다. 각각의 문화 유형별 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타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는 관습은 67%로 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물건을 주고 받을 때 예절, 박물관 예절,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표현, 수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 부탁하는 표현 등이 23.8%의 반영률을 보였고 여러 나라의 인사법과 때에 따라 달라지는 영어인사말 등을 포함하는 인사 및 소개 표현은 12%를 차지하였다. 취미, 여가, 스포츠 등에 관한 내용은 12%의 비율로 나타났다고 여러 나라의 대표 동물을 소개하는 동물 관련 내용도 12%를 차지하였다. 여러 나라의 생일 풍습 등을 포함하는 사회습관은 7.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물에 관한 내용은 26%의 반영률을 나타내었는데 그 중 의식주에 관한 내용이 12%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날씨와 관련된 표현을 배우는 지형 및 기후가 7%를 차지하였다. 세계의 명화나 음악과 관련된 예술은 4.7%, 자연과 환경은 2.3%로 각각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친밀한 공동체인 가족과 관련된 가족생활이 7%로 나타났다.

III. 결과 및 논의

1. 학년별 영어 교과서 문화 유형 분석 결과

3, 4학년 영어 교과서 문화 고정량의 문화 내용을 출판사별로 나누어 문화 유형 분류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3][표 4]과 같다.

1.1 3학년

표 3. 3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 유형별 빈도 및 비율

문화유형	교과서	교과서				합계		
		A	B	C	D	빈도	비율	전체
산물	나라, 도시, 명물, 유적지	
	의, 식, 주	2	1	1	1	5	12	26
	지형 및 기후	.	1	1	1	3	7	
	자연과 환경(오염, 보존)	.	.	.	1	1	2.3	
	예술(음악, 미술)	.	1	.	1	2	4.7	
	발명품(TV, 컴퓨터, 스마트폰)	
인사 및 소개	1	2	1	1	5	12		
관습	사회습관(식사, 생일, 건강, 풍습)	.	1	1	1	3	7.2	67
	편지, 일기(e-mail, SNS,	

1.2 4학년

표 4. 4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 유형별 빈도 및 비율

문화유형		교과서				합계	
		A	B	C	D	빈도	비율(%)
산물	나라, 도시, 명물, 유적지	·	1	1	·	2	4.8
	의, 식, 주	·	2	3	1	6	14.4
	지형 및 기후	·	·	·	·	·	·
	자연과 환경(오염, 보존)	·	·	·	·	·	·
	예술(음악, 미술)	·	1	2	·	3	7
	발명품(TV, 컴퓨터, 스마트폰)	·	1	·	1	2	4.8
관습	인사 및 소개	1	1	·	1	3	7
	사회습관(식사, 생일, 건강, 풍습)	·	·	1	·	1	2.5
	편지, 일기(e-mail, SNS, 홈페이지, 인터넷)	·	·	·	·	·	·
	취미, 여가, 안전, 스포츠, 캠핑, 여행	·	1	2	1	4	9.5
	명절, 행사	·	1	·	2	3	7
	일상생활(전화, 쇼핑, 숫자)	3	3	3	4	13	30.5
	동물, 동물보호	·	·	·	·	·	·
	직업, 장래희망	1	·	·	·	1	2.5
관점	국민성 및 가치관	·	·	·	·	·	·
	언어(속담, 광고, 신문기사, 제스처)	·	·	·	·	·	·
	위인 및 인물	·	·	·	1	1	2.5
	문학(이야기, 유머)	·	1	·	·	1	2.5
	과학 및 탐구	·	·	·	·	·	·
공동체	여성, 남성	·	·	·	·	·	·
	학교 생활	·	·	·	1	1	2.5
	시골·도시생활	·	·	·	·	·	·
	가족생활	·	1	·	·	1	2.5
	인물 개인생활 및 습관	·	·	·	·	·	·
합계						빈도수	42
						비율(%)	100

4종의 4학년 교과서를 문화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관습이 59%로 가장 높은 반영률을 보였고 산물이 31%의 비율로 그 뒤를 이었으며, 관점과 공동체는 각각 5%의 반영률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개인생활 및 습관과 관련된 인물은 네 교과서 모두 다루고 있지 않았다. 각각의 문화 유형별 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타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는 관습은 59%로 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탁하는 표현, 시간을 묻고 답하는 표현,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표현, 지구촌 공통 예절 등이 30.5%의 반영률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취미, 여가, 스포츠 등에 관한 내용이 9.5%를 차지하였다. 여러 나라의 성과 이름을 쓰는 순서에 따라 자신과 친구

를 소개하기 등을 포함하는 인사 및 소개 표현은 7%의 비율로 나타났고 여러 나라의 기념일과 관련된 명절 및 행사 표현도 7%로 나타났다. 직업과 사회습관은 각각 2.5%의 반영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산물에 관한 내용은 31%의 반영률을 나타내었는데 그 중 여러 나라의 음식, 각 나라의 전통의상 등 의식주에 관한 내용이 14.4%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미술과 음악과 관련된 예술이 7%를 차지하였다. 나라, 도시, 명물, 유적지로는 여러 나라에서 열리는 유명한 박람회가 등장했고, 발명품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발명한 발명품을 소개하였으며 그 비율은 각각 4.8%로 나타났다.

공동체에 관한 내용으로는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관련된 표현이 등장하며 각각 2.5%의 비율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3학년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관점에 관한 내용이 4학년 교과서에 등장하였으며 여러 나라의 문화 등을 활용한 문학이 2.5%, 위인 및 인물을 다루는 내용이 2.5%로 나타났다.

2. 논의

초등학교 3,4학년 영어교과서의 문화고정관을 문화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관습이 63.2%로 가장 높은 반영률을 보였고 산물이 28.5%의 비율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공동체는 5.9%, 관점은 2.4%의 반영률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개인생활 및 습관과 관련된 인물은 3,4학년 교과서 모두 다루고 있지 않았다.

관습 중에서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2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것은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르고, 자기 주변의 일상생활 주제에 관하여 영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영어 학습을 통해 외국의 문화를 이해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5).”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바람직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소재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어 영어의 의사소통능력과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공동체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로서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이 강조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함양 하도록 하는 데 그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산물 중에서는 '의식주'에 관한 내용이 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다른 나라의 전통음식 이나 디저트 등 외국의 음식 문화에 관한 내용이 네 교과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소개되었다. 음식과 관련된 문화 소재들은 학생들의 즉각적인 흥미를 이끌어내고 색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문화 교육에 대한 정의적 태도에 있어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음식 문화가 교과서에 높은 비율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에서는 가족생활이 4.7%, 학교생활이 1.2%를 차지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공동체인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 내용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문화 교육에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개인생활 및 습관을 다루는 인물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교과서는 구체적인 사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보편적 소재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화 고정관에 제시된 문화 내용들이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인 영어의사소통역량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과 공교육의 장에서 영어교육을 위한 기본 지침서가 영어 교과서라는 점을 감안할 때[9] 영어 교과서가 문화교육의 주요 도구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영어교과서가 문화 소재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선정하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핵심역량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3,4학

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 고정관에 문화적 소재가 얼마나 다양하고 고르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교과서 8종의 문화 고정관을 대상으로 Moran(2001)의 문화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관습이 63.2%로 가장 높은 반영률을 보였고 산물이 28.5%의 비율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공동체는 5.9%, 관점은 2.4%의 반영률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개인생활 및 습관과 관련된 인물은 3,4학년 교과서 모두 다루고 있지 않았다.

Moran(2001)의 문화 유형 분류를 기준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분석한 정인경(2010)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3, 4학년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인경(2010)의 연구에서는 관습이 57.2%, 관점이 19.5%, 산물이 11.7%, 공동체가 9%, 인물이 2.8%의 반영률을 보였다. 두 연구 결과에서 모두 관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공동체와 인물의 반영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의 차이점으로는 산물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관점의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교과서에서 관습(practices)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언어생활과 생활 공동체에서 접하는 행위문화를 포함하는 관습에 대한 문화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Tomalin과 Stempleski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10] 바람직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관습 중에서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2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것은 외국어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생활방식, 행동유형 등을 먼저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교육의 방향이라고 제시한 Brooks(1964)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는 소문화를 외국어 학습 초기의 문화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한 Chanstain(1976)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한다[10]. 또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소재는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르고, 자기 주변의 일상생활 주제에 관하여 영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영어 학습을 통해 외국의 문화를

이해한다[1].”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효과적이다. 산물(products)도 28.5%의 비율로 관습에 뒤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이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의 발달단계와 흥미를 고려할 때 산물이나 관습과 같은 가시적인 문화에 관한 내용이 학습자에게 친숙하며 이해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체(communities)에 관한 내용으로 가족생활과 학교생활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공동체인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 내용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문화 교육에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관점(perspectives)은 비가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흥미를 잃기 쉽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적 발달 수준과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여 관점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낮은 비율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점은 다른 문화 유형 학습에 도움을 주는 기초가 되며 관점에 대한 문화 학습이 중요하다는 Moran의 주장이 비추어 볼 때[11] 이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개인생활과 습관에 관한 내용인 인물(persons)은 3,4학년 교과서 모두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교과서는 구체적 개인의 사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보편적 소재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물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문화 유형에 비해 관점의 내용이 매우 적은 것은 문화 교육의 균형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교과서는 타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방식, 행동유형 및 관습과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 산물과 같은 가시적인 문화에 관한 내용,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보편적 문화 소재를 위주로 문화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초등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흥미를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학습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특정 문화 영역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문화 유형에 비해 반영률이 현저히 적은 것은 문화교육의 불균형을 야기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12]. Moran

에 따르면 문화는 사람들의 변화하는 삶의 방식이며, 공유된 관점을 기초로 특정화된 사회맥락 안에서 설정되는 것으로 공유된 산물과 관련된 일련의 실행으로 이루어지므로[11] 문화 내용 선정에 있어 다섯 가지 문화 유형이 모두 조화롭게 존재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문화의 이해와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문화고정란은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있는 문화 내용을 소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언어 화자와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맥락에 적합하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의사소통역량을 신장하고 배려와 관용, 문화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두루 포함하는 공동체역량을 함양하며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정립하여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 소재 유형 뿐 아니라 문화 내용 제시 방식 및 학습활동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과 자기관리역량, 공동체역량 및 지식정보처리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교육부,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
- [2] L. M. Crawford-Lange and D. L. Lange, "Doing the unthinkable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A process for the integr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ACTFL Foreign Language Education Series, pp.139-177, 1984.
- [3] B. Tomalin and S. Stempleski, *Cultural Awareness*,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4] 조미영, *초등영어 5-6학년 영어교과서 문화교육 방법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6.
- [5] 정인경,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화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0.

- [6] 나금효, *영어교과서에 반영된 문화 분석: 중학교 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하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5.
- [7] 박선희, *초등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 문화내용 분석: 7차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2.
- [8] 김가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 교과서 문화 내용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5.
- [9] 서미옥, 이재근, “2009 초등영어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4학년 영어 교과서 문화 내용 분석,” *초등교과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pp.97-116, 2010.
- [10] 배두본, *영어교육학 총론*, 한국문화사, 2002.
- [11] Patrick R. Moran,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practice*, Heinle&Heinle, 2001.
- [12] 김인옥, 김희정, “초등 3학년 영어 교과서 문화 분석 및 체험중심 문화 지도 방안 제언,” *영어영문학연구*, 제54권, 제4호, pp.133-153, 2012.

김 정 렬(Jeong-ryeol Kim)

정회원



- 1996년 ~ 현재 :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 2012년 ~ 현재 : 한국영어다독학회 회장
 - 2011년 ~ 2012년 : 초등영어교육학회 회장
 - 2013년 ~ 2014년 : 외국어교육학회 회장
 - 2012년 ~ 현재 : Extensive Reading Foundation 이사
 - 2014년 ~ 현재 : Reading in Foreign Languages 저널 편집이사
 - 2015년 ~ 현재 :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원
- <관심분야> : 컴퓨터활용 영어교육, 초등영어교육, 영어교수법

저 자 소 개

장 나 래(Na-rae Jang)

준회원



- 2011년 2월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교육학사)
- 2018년 3월 ~ 현재 :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교육과 초등영어전공 석사과정 파견

<관심분야> : 초등영어교육, 문화교육